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고 저는 평소엔 자신감도 많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는데 어느날부터
 자존감도 떨어지고 눈물도 자주 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되는 것도 듣고 보았는데
 그때 책을 사서 읽어보자 하고 서점에 가서 고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제목처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별로~~ ^{별로} 별로 알고 싶어서 ~~읽었다~~ 더 마음에 인당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은 총 6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루} 파트는 나의 삶을 존중하고 살아가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며 비참하게 노력하지 않기를 말합니다.
 두번째 파트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자존감을 다지며 나다운 삶을 찾으며 개인의 취향을
 갖추며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파트는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삶이라는 모호함에 전디고 충분히 슬퍼하며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번째 파트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며, 일상에서 승패에 좌우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파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스스로는 비난하지 말고
 잘처우는 법을 배우며 필요하면 버리고 방황하는 어른이 되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겨
 여섯번째 파트는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겨
 가지 파트로 나뉘었는데 저의 그 중 첫번째 파트인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내용 중
 「인생에서 숫자를 지킬 것」이 부분이 제일 인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머물렀던 ~~중~~ 내리쬐는 중산층의
 기준인데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반쯤밖에 등장하는 숫자였습니다. 숫자에는
 나이, 기, 대학서면현위, 몸무게, 토익 점수, 학점, 연봉, 집평수 저는 이것들을 보고 가장 먼저 내 삶에
 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숫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답을 주지는 못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숫자는 꼭 시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매겨지는 수가 현실이 비교되며 ~~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 같아
 너무 독상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제와 이상 같고 머릿속에서 떠돌던 것 같았습
 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진 이런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숫자가
 나를 소개하는데 제법 큰 지위를 차지한 기분이 들어 막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끌리긴 하였지만 변한 이야기만 쓰여있는 책일 줄
 알았는데 정말 위트가 되고 매번 남들에게 신경 쓰느라 내 자신에게 소홀해진 것 같았고
 나를 한번 더 생각하게 된 책인 것 같다.